

전북 신한 자산운용 허브 출범...도약 신호탄

혁신도시 신한 금융허브 개소 전주본부 130명 전문인력 배치 300명 규모 자본시장 거점 확대 제3 금융중심지 지정 '탄력'

전북도와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24일 전주 만성동에서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금융그룹 전북 금융허브 출범식 및 신한핀드파트너스 전주본부 개소식'이 열렸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1월 신한금융그룹이 발표한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조성 계획이 한 달여 만에 실질적인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출범식의 핵심은 자산운용 생태계가 전주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점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전주본부에 신한핀드파트너스 상주 인력 44명을 배치했으며 전주 지역 전체를 포함해 130여 명의 전문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향후 은행·증권 등 계열사 역량을 집중해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자본시장 거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북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인재 채용을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허브는 단순한 지역 사무소를 넘어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을 기반으

로 운용·수탁·리스크 관리·사무관리 등 자본시장 비즈니스의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앞서 도와 신한금융그룹은 2024년 12월부터 약 1년 간 면담을 통해 사무실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및 상생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신한핀드파트너스 임직원들은 한옥마을 일원에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교감을 이어왔다.

도는 이번 금융허브 출범을 계기로 서울(종합금융), 부산(해양·파생금융)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 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 삼각축'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

연금공단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중심의 전북형 특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행보는 전북이 추진 중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맞물려 주목된다.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이 각각 종합금융,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데 비해 전북은 자산운용을 핵심 축으로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최대 연기금이 자리한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사가 들어서 예정으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향한 전북의 명분은 한층 두터워졌다는 평가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과

의 협력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의 기능을 한곳에 모아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신한금융그룹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출범은 전북이 제3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특화 금융 생태계를 완성해 금융중심지 지정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의원 정수 특별자치도 위상 걸맞게”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의원들은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찾아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국회 정개특위 찾아 도의원 정수 확대 촉구

선거구 획정 개선 건의문 전달 특별자치도 행정수요 반영 강조 농산어촌 대표성 확보 요청

전북도의회가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 180만 전북도민의 민의를 온전히 대변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문승우 의장을 비롯해 이명연 부의장 등은 정개특위 의원들을 만났다.

특히 선거구 개편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을 직접 만나 선거구 획정시 불합리한 전북지역 도의원 정수 개선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문 제출은 전북이 지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의회 조직과 도의원 정수는 과거의 기준에 묶여 있어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입법 사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도의원 정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강력히 요구했다.

불합리한 '정수 조정 범위' 적용의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적으로 시·도별 의원 정수는 20%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수만 배정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의정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북특별법 조항이 131개로 늘어나고 75개의 특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도의원의 물리적 인원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도의회의 입장이다.

문 의장 등은 이 같은 건의 내용이 반영하도록 선거구 획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도의회를 포함한 정책 관련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국회 정개특위에 요청했다.

문승우 의장은 "합리적인 의원 정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5급 3목' 체계와 같은 균형발전 전략도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이번 건의는 단순히 의석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무너져가는 지방의 대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국회 정개특위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국힘 대미투자 심사 거부는 매국”

“국힘, 국익 포기 매국적 행위 민주당 할 수 있는 조치 다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익과 관련해서 한 치의 머뭇거리기 없이 대미투자 관련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단독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한



한병도 원내대표

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책 공회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면서 “대미투자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2면에서 계속>

장수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역량 입증

혁신 리더십·민관협력 성과 인정 의약분업 예외·수직농장 우수평가 전 지표 ‘보통 이상’ 등급 획득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3년 연속 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광역 17개·기초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혁신 리더십 △조직문화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등 10개 분야를 평가해 61개 우수기관을 발표했다.

장수군은 이번 평가에서 혁신활동 참여 및 성과 확산, 민·관 협력 활성화, 대표 혁신과제 추진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모든 평가지표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방정부 혁신을 위해 군의 전방

위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가 대외적으로 공인받은 결과이다.

특히 군은 혁신과제로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통해 주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형 임대형 수직농장'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은 최근 3년 연속 우수등급을 유지하며 조직 내 자율적 혁신 분위기가

성과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지속해오며 장수군의 혁신 가속도가 정점에 달했음을 입증했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장수군은 민생을 위해 앞장서는 정책 개발에 총력을 다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장 중심 혁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내 고향 장수군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장수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하세요!



장수사랑상품권 장수 한우 꺼먹돼지 세트 장수 사과 오미자 오미자주 등 20여개 품목

문의: 장수군 행정지원과 063-350-2009, 2140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한도액 연간 2,000만원

기부혜택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혜택 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 공제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세액공제
· 2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 2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최고 600만원까지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포함)

전북도, 민선8기 17조8천억 투자유치 '年 5조 시대'

252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1천억 이상 투자 100% 증가 이차전지 56% 첨단산업 재편 대기업 7곳 유치 공약 초과 달성

전북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업유치 실적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52개 기업으로부터 17조 8,38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평균 5조원 규모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투자유치액 3조원과 비교할 때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는 29건, 13조 3,199억원으로 민선7기 25건, 6조 6,318억원 대비 금액 기준 100.8%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투자금액도 2,653억원에서 4,593억원으로 73.1% 늘어나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을 달성했다.

민선8기 기업유치는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민선6기는 식품(28.2%), 민선7기는 전자·전자(24.6%)가 1위였으나, 민선8기는 이차전지가 10조 347억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하며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어 바이오 1조 4,203억원(8.0%), 화학소재 1조 3,397억원(7.5%)이 뒤를 이으며 전북 산업생태계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또 대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전북이 지역 투자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도는 삼성, 포스코, LS, 두산 등 대기업 계열사 7개사를 유치해 4조 4,017억원의 투자를 확보했으며, 이는 민선8기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공약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북의 산업 경쟁력을 대내외에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유치 기업들의 투자이행률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투자완료·가동 중인 53개사와 이행 중인 114개사를 합하면 협약 기업 249개사 중 167개사(67.1%)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6년에는 정부의 지역 육성기조와 금융지원, 민간의 대규모 투자 흐름을 결합해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산업입지 확보를 위해 신규 산단 조성과 노후 산단 대전환을 동시 추진해 기업 투자환경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그러면서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매국적행위, 국의 포기행위"라면서 "이렇게 까지 막 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다"며 법안의 단독처리 의지를 밝혔다.

또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는데, 적당히 하십시오"라면서 "국익을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무산 위기에 직면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선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 과학 수도로 거듭나는 '대전·충남'을 대전

법안 단독처리 의지 밝혀 대전·충남 통합 무산 위기 지적

이장우 시장과 김태홍 충남지사가 강조한 바 있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두 단체장과 국민의힘 소속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면서 완전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짐수로 대체 될 하겠다는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으며,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자치도,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공모 도전

총사업비 200억 규모 추진 R&D부터 사업화 전주기 지원 2030년까지 산업 거점 조성

전북도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미래 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구축사업' 공모 대응에 나섰다.

24일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37%, 지방비 63%) 규모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추진된다.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 발굴과 제형 개발, 제조공정 확립,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제조 전 공정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산업화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산업화 거점 선점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제조·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공모 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0일부터 3월1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 18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3월19일부터 4월23일까지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현장·대면 평가에 대비해 5월 최종 선정에서 성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성계획 수립, 산업특구 지정, 연구개발 촉진,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도 구축했다.

도는 법 제정 이전부터 반려동물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져왔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분석 연구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해 중장기 추진 체계를 갖췄다.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전북연구개발특구, 도내 대학 등 동물 헬스케어



동물용의약품클러스터 전경

<사진=전북도>

인프라를 보유했다는 강점이 있는 만큼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핵심 분야로 연계·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와 정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만큼 국가 정책 기조와 발맞춰 산업화 기반을 선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

/장정철 기자

전북 지역화폐 발행액 1조7천억 돌파 '재정 부담' 과제

2025년 전년비 14.8% 증가 익산 '다리로움' 역성장 대책 시급

전북도 14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감소세와 재정 부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정시민넷(대표 손문선)은 14개 시군의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북 지역화폐 총발행액은 1조 7,316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사용액도 1조 7,194억4천만원으로 13.5% 늘어 지역 내 경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군산시는 전년 대비 발행액 972억 원(30.5% ↑), 사용액 935억 원(29.0% ↑)이 증가하며 도내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정읍시와 남원시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발행형태는 익산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는 카드형(모바일 포함)만 운영 중이며, 나머지 10개 시군은 지류형과 카드형을 혼용하고 있다.

발행액과 사용액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익산시가 도내 1위를 지켰으나, 유일하게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익산시 발행액은 4,582억 원(2.0% ↓), 사용액은 4,446억 원(3.0% ↓)으로 집

계돼 전체기를 맞았다. '다리로움'의 사용 유형은 일반음식점·식음료업(31.2%), 식자재·유통(17.2%), 보건·복지(10.6%), 자동차·주유(9.3%) 순으로 나타나 소비처 풀림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대형 마트와 영세 골목상권의 소비 데이터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한 운영 대행사 교체를 통해 발행 수수료율을 기존 0.4%에서 0.24%로 대폭 낮추려 예산을 절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역화폐 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할인판매보전금은 1,970억원으로 이중 1,180억원을 시군이 부담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지적됐다. 14개 시군이 운영 대행사에 지급한 비용은 총 8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발행 수수료율은 전주시가 0.19%로 가장 낮은 반면, 부안군은 1.5%에 달해 지자체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시군 공동 협의체 구성이나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소비 구조에 대한 세부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지 기자

이원택 "전북 K-컬처 메카로"...문화산업 거점 공약

판소리 기반 K-스토리 콤플렉스 문화ODA·아트테크랩 추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제안



이원택 의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은 K-컬처의 원천 자산인 전통문화가 탄탄한 지역으로, 미래문화를 주도할 잠재력과 창작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문화 선도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판소리와 전통문화예술을 기반

으로 한 실감형 'K-Story 콤플렉스'(콘텐츠 생산기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K-컬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전략적 문화 ODA(문화교류협력사업)를 추진하고, 문화기술 연구를 위한 K-아트테크랩(콘텐츠 창작 실험실)을 설치해 문화기술 융합을 통한 문화 4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한다. 또 세계 OTT 시장을 겨냥한 K-스토리 시나리오 스쿨을 개설하고, 전북 문화 IP(지적 재산권)의 세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북을 국가 문화정책과 예

술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원, 국립발레단 등 국가 문화예술기관 이전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 내 대학 출신이거나 5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한 예술인에 대해 30% 채용 의무제를 도입해 지역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의 문화예술을 '지원 대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전환한다. 전통문화예술과 8대 기초예술, 예술

일교차가 큰 환절기! 따뜻하게 입고 건강 잘 챙기세요

1. 손씻기 & 위생관리

감기나 독감예방을 위해
외출후 손씻기
철저히!

2. 운동 & 충분한 휴식

가벼운 스트레칭 & 산책으로
혈액 순환 원활하게

3. 면역력 키우기

제철 과일 & 채소 섭취 및
단백질 섭취로 면역력
강화

4. 수분 보충하기

하루 1.5~2L 물 마시고
가습기로 실내 온도 유지

전주시 '지역사회와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전주!'

보건·의료분야 6대 추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전주시는 시민들이 행복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24일 시는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를 비전으로 보건·의료분야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분야 6대 추진 전략은 △일상의 건강을 찾아주는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강화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내실화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 만들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아동비만 건강관리사업 △전주형 노쇠예방 관리사업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총괄기관 담당 △치매 어르신 구강검진 △재가노인 방문 구강검진 △스마트경로당 활용 건강교육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아동비만 건강관리사업(건강한 돌봄놀이터)'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향상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또 전주형 노쇠예방 관리사업을 통해 성인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

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선제적 노쇠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보건소는 또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건강 관리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보건소는 치매 노인에 대한 구강 검사 및 상담을 추진하고, 지역 치과 의료기관 협력을 통해 치매안심치과를 지정해 노인 구강 진료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의 구강 관리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보건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을 상시 살필 예정이다.

에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임신 관련 정책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시는 올해 '대한민국 제1의 치매안심도시'와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내실화를 위해 공을 들인다.

치매안심마을과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추가 지정해 지역사회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마음치유사업', '마음안심버스', 순회 상담 등을 확대해 시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끝으로 시는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한다.

/정소민 기자

서울대 황호성 교수 전주소년원서 특별강연

"138억년 우주의 역사, 그 끝에 당신이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의 순간부터 거대한 은하의 충돌, 그리고 그 찰나의 끝에 서 있는 '인간'의 존재까지, 전주소년원 강연장에 흐르는 것은 엄격한 훈육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기원을 가진 존재인지에 대한 경이로운 고백이었다.

법무부(정성호 장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지난 23일 세계적인 천문학자이자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인 황호성 박사를 초빙해 겨울방학 명사 특강 '나, 그리고 우주'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소년원생들에게 우주적 관점에서 자아 성장과 존재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특강은 황 교수의 각별한

고향 사랑과 후학 양성에 대한 열정으로 성사됐다. 전북 군산시 대야면 출신인 황 교수는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연구소와 프랑스 CEA 등을 거친 세계적 석학이다. 그는 바쁜 연구 일정 속에서도 고향에 있는 소년원생들을 위해 기꺼이 강연대에 섰다.

황호성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로 풀어냈다. 우리 몸

을 구성하는 탄소와 철분 등 필수 원소들이 과거 거대한 별의 폭발을 통해 만들어진 '별의 먼지(Stardust)'라는 과학적 사실은, 자신을 사회의 부속품이나 낙오자로 여겼던 소년원생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줬다.

황 교수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138억년 전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시작된 역사가 흐르고 있다"며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먼지처럼 작지만, 그 우주를 관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를 연구할수록 인간에 대한 겸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잠시 길을 잃은 고향의 후배들이 우주라는 거대한 지평선 위에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계도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밝혔다.

임춘덕 교무과장은 "천문학"이라는 고도의 지적 사유를 통해 소년들이 깨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게 하려는 의도로 기획했다. 앞으로도 인문학과 과학 등 수준 높은 문화적 자극을 통해 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변화와 회복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폭 확대

올해부터 대폭 확대 지원금 상향

전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은 기존 19세에서 19~20세(2006~2007년생)로 확대됐다.

단, 생애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지난해

이미 혜택을 받은 2006년생(2025년 포인트 사용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지만, 지난해 신청 후 전액 미사용자 또는 사용이력이 없는 2006년생은 올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기본 15만원에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5만원이 추가돼 총 2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수도권(15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두터운 혜택을 제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자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영화' 분야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영화는 등록된 작품에 한해 연간 최대 4회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극·뮤지컬·클래식 등 공연과 미술·공예 등 전시 분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예매처를 기존 2곳에서 총 7곳(NOLLET, YES24티켓, 멜론티켓, 티켓링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으로 늘려 기존 이용 시 불편함을 줄였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19~20세 청년 4079명에게 선착순 지원될 예정이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www.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지정예매처에서 온라인 예매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남관우 전주시의장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24일 제272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사고 예방 위한 재원 활용해야"

대한민국시군자치구회의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남관우 전주시의장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건의안

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한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지방세입 전환, 교통안전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재무 안정적 관리... 추가 재정 건전성 확보 전력

26년 말 기준 채무 6841억 원 예상 정부 한도액 내에서 체계적 발행

전주시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채무 관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사업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내실을 다져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민선8기 발행한 지방채의 57%는 등산로와 도로 등 공공재 확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했다"면서 "앞으로는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복지과 민생 예

산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준 지방채 잔액이 6225억 원이며, 올해 사업을 모두 포함해도 6841억 원 수준으로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25%)에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정한 연도별 한도액 내에서도 지방채가 관리되고 있다.

특히 민선8기 출범 후 발행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매입비용 2285억 원과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으로

전북의 광역 인프라 구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 부분에 투입됐다.

시는 전주시의회 의결을 받아 26년에 발행예정인 지방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전주권 광역매립장 정비사업 등과 같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위기와는 큰 격차가 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까지 포함하거나 탄소국가산단과 같이 사업 진행에 따라 소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전주시 채

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가 세입 확보와 사업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채를 줄여가는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재정 건전성을 지속해서 확보해갈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새마을회-구리시새마을회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호 협력 증진·신사업 발굴

전주시새마을회는 24일 새마을회관에서 구리시새마을회와 양 도시 간 상호 협력 증진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새마을회와 구리시새마을회 산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구리시지부 등 4개 단체가 함께 참여해, 단체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협약식에는 송병용 전주시새마을

회장을 비롯해 박창석 새마을지도자 전주시협의회장, 유선영 전주시새마을부녀회장, 한복순 새마을문고전주시회장, 장명만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전주시협의회장과 안정섭 구리시새마을회장, 배상은 새마을지도자구리시협의회장, 이혜순 구리시새마을부녀회장, 박정애 새마을문고구리시회장 등 양 단체 임원 및 새마을지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향후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위기고립가구 돌봄방 '온도플러스' 가동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이 올해도 주민이 직접 위기 이웃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전주형 복지공동체' 확산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전주시복지재단은 24일 '2026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지원사업 사업비 전달식'을 열고, 최종 선정된 7개 수행기관에 총 3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지원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위기·고립가구를 발굴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지역 내 기관과 주민이 함께 움직이며 공동체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재단은 올해 사업 2년차를 맞아 지원 대상을 위기·고립 청년과 탈시설 노숙인, 관계 단절 가구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관계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관은 △여명노인복지센터 △사람의 실천 아들람 △전북우리사이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청년식당 사잇길 △평화사회복지관 등 총 7개소다.

선정된 7개 기관은 지원금을 활용해 △같이 살피는 '이웃사촌' △함께 해결하는 '생활 지원' △다시 이어가는 '관계 회복'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되며, 재단은 중간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실행 과정을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재단은 또 오는 11월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내년도 우선 선정 혜택을 부여해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2026년 탄소중립 시민교육 다양해진다!

24일 '2026년 탄소중립 시민교육 표준교안 발표회' 개최

전주시는 24일 '2026년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사업 표준교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탄소중립 시민강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탄소중립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생애주기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표회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열

해까지 전주시민 12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인식 전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표준교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발표회는 올해 교육에 활용하기 전 내용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는 그동안 유아 1종·청소년 7종·성인 2종 등 총 10종의 표준교안을 마련해 현재 탄소중립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유아·청소년 각 1종씩 총 2개의 생애주기별 표준교안을 추가로 선정하고 기존 성인교안 중 1종을 보완 및 개량해 총 12종의 표준교안을 올해 교육과정에 활용하게 된다.

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기존 교안과 신규 표준교안을 병행 활용함으로써 교육 대상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탄소중립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조촌동-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역본부,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 조촌동 지역주민 건강보호 및 증진 기대

전주시 조촌동(동장 이영애)은 지난 24일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역본부(본

부장 강영철)와 조촌동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역본부와 조촌동 주민센터 및 자생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조촌동 관내 복지취약계층 주민 50명 무료 건강검진 △지역주민 건강진단 및 국가 암 검진 실시 △예방접종 및 혈액 종합검진·검사 시 1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위생산업, 건강 진단사업, 보건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기상청과 빅데이터 융합·개발 '맞손'

AI 기반 위험예측 사전점검으로 국민 안전 강화 정책 선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24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기상청(청장 이미선)과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정전, 전기설비 손상, 갑작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예측과 예방 중심의 과학적 안전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기상·전기안전 데이터 공유와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AI 기반 위험예측 및 사전점검 서비스 구현 △관련 정책에 대한 협력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공사는 전국의 전기설비 점검 이력과 사고 데이터를 기상청의 빅데이터와 결합해 AI 기반 전기설비 위험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취약 설비를 조기에 식별해 점검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재난 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기상요인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기반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사장은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점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검하게 되면, 국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융합 기반으로 과학적 안전관리 서비스를 지속



전문건설 장학금·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72명에 5760만원 전달 한 꿈이 실현될 것을 믿는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24일 전문건설 회관에서 제30회 전문건설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원사 임·직원과 장학금 및 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수여식에는 2026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72명에게 총 5760만원 장학금 전달과 함께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임근홍 회장은 "전문건설 가족 여러 분들과 학업에 매진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자리가 학생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밝은 내일로 한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노력과 경험들이 보람찬 결과로 돌아와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전북 기계설비·가스공사사업 5170억원 실적 신고

전년도 총실적 규모와 유사 1위 466억원 진흥설비(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유제영)는 지난 20일 2025년도 기계설비·가스공사사업 건설공사 기성 실적 신고를 마감한 결과, 도내 375개사가 총 5170억 원의 실적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360개사 대비 15개사가 증가한 수치로서 총 실적 규모는 전년도(5171억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체 수 증가에 따라 업체당 평균 실적은 2024년 14억3660만원에서 2025년 13억7892만원으로 약 4.01% 감소했다.

2025년도 기계설비공사 실적신고 1위

는 466억원을 신고한 진흥설비(주)(대표 송호용·류국선), 2위는 159억원의 (유)동성엔지니어링(대표 김연태), 3위는 129억원의 ㈜케이엔지(대표 박종우)가 각각 차지했다. 상위권 업체들은 대형 민간 건축 현장과 공공시설 설비공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유지하며 실적 상위권을 기록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 실적신고 1위는 55억원을 신고한 ㈜현장엔지니어링(대표 김해선), 2위는 45억원의 ㈜다성산업개발(대표 박계남), 3위는 35억원의 (유)상아이엔지(대표 유기정)가 각각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건설경기 위축과 착공 물량 감소 영향으로 공사실적이 감소한 지역이 다수 나타난 가운데, 전북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수도권 대비 대형 민간 주택사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비중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노후시설 개보수, 산업시설 유지관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필수 설비공사 물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실적 급감 요인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공종별로는 전북 지역의 건축기계설비공사가 민간 주택 및 상업시설 착공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분포를 살펴보면 10억원 미만 업체가 210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실적 업체도 34개사로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억원 이상 실적을 신고한 업체는

33개사로 전년(32개사)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한 실적 규모에서 업체 수는 증가, 평균 실적은 감소라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건설경기 둔화 지속, 민간 건축물 착공 감소, 공사비 상승에 따른 발주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체 파이가 작아진 가운데, 업체 수 증가로 실적 분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유제영 회장은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도 도내 기계설비·가스공사사업계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역 설비산업의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며 "협회는 회원사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지역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 국민연금·전북도·KB금융 '협력'

지역사회공헌 공동추진 MOU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이하 공단)은 23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의 KB금융타운 건립 발표 이후 첫 후속 조치로, 세 기관이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전북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국제금융컨퍼런스 공동 개최 △초·중·고교생 대상 금융교육 실시 △대학생 중심 금융인재 양성 △기후테크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내용이 담겼다.

공단은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이래 국내외 자산운용사 사무소 16곳을 전주에 유치했고, 2018년부터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해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지원해왔다.

그리고 최근 김성주 이사장은 지역에 사무소를 개소한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KB 금융타운 조성 및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은 금융생태계를 강화하고 자산운용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2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전북지역 소비자 경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2026년 2월 중 전월 112.0보다 0.4p 하락한 111.6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은 112.1로 전월(110.8)대비 1.3p 상승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동향지수(CSD)를 살펴보면 주요지수로 현재생활형편(95→97), 생활형편전망(99→100), 향후경기전망(105→106)은 상승으로 확인됐다.

농진청 '아시아 음식 문화유산' 영문판 발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아시아 식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12개 국가의 전통음식 정보를 담은 '아시아 음식 문화유산(Culinary Heritage Across Asia: Profiles of Selected Traditional Foods)' 영문판을 발간했다.

아시아 12개 국가는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한국.

이 책은 아시아 전통음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공동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를 통해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소비하는 식품의 영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성과를 냈다.

이후 아시아 농식품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협력 연구를 확대해 회원국 연구진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집약한 책을 이번엔 발간하게 됐다.

연구진은 문헌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국의 전통음식 중에서도 문화적 보존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음식을 선별해 책자에 담았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2개 국가의 전통음식 120가지에 대한 특성과 조리 방법, 식재료의 영양학적 정보를 사진과 함께 종합적으로 수록해 이해를 돕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전통음식 성분을 분석하고 영양학적 가치를 알리는 일은 각 국가의 식문화 보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아시아 주요 식품의 영양 정보가 확대 구축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사진=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이경태 과장은 "이 책은 각 나라마다의 고유하고 독특한 전통음식과 식문화의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식문화 전승 목적에도 충

전북 전국 신협 종합경영평가 3개 신협 대상 수상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는 24일 신협중앙연수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에서 진행된 제53차 신협중앙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주삼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반딧불신협이 2025년 전국 신협 종합경영평가 각 군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종합경영평가는 751개 신협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신규모별로 6개 군으로 나누어 수익성,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며, 전주삼천신협(최태일 이사장)은 2군 127개 신협 중 1위, 무주안성신협(이내숙 이사장)은 5군 124개 신협 중 1위를 그리고 무주반딧불신협(지대신 이사장)은 6군 132개 신협 중 1위를 차지해 전국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전주호성신협(김용식 이사장)이 5군 3위, 예수병원신협(주명진 이사장)

이 전국 113개 직장신협 중 1위를 차지해 특별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대외기관 표창 부문에서도 경사가 있었다.

전주삼천신협 최태일 이사장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고창신협 이정현 전무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날 신협 종합경영평가 각 군별 대상을 수상한 3개 신협에 대한 중앙회장 표창수여도 진행됐다.

전주삼천신협 조용관 전무, 무주안성신협 조용환 사원, 무주반딧불신협 심현배 전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연수 본부장은 "2025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전북신협 임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2026년에도 밝은 앞과 함께 도약하는 전북신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교육청,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 '의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지역 수준 교육과정 정비

전북도교육청은 24일 '2026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해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 2026.1.21.)'을 반영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현행화하고 적용 시기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련 내용을 정비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사항을 추가 반영해 법적 근거와 적용 시기를 명확히 했다. 또 이전 고시의 폐지 시기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 간 체계를 일치시켰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5-6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학교자율시간의 학년군별 확보 시간을 명시하고, 교육부 용어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했다. 이로써 초등학교 전 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

정 총론 체계에 맞춰 목차와 내용을 재구성하고,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부록 영역의 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의 개정 반영이 없는 만큼 현행 유효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1·2학년의 적용으로 변경하는 최소한의 개정으로 학교를 밀착 지원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고시에 따라 학점 이수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기 간 편성 학점의 차이를 명료화했으며, 동일 학년도 입학생의 동일 과목에 대한 동일 이수 학점 배당 기준을 신설했다. 이어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국

제 공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문 교과 필수 이수 학점 기준을 마련하고, 특수목적고의 체육·예술 계열 실기·실습 과목 편성 학점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학점 배당 최종안의 제출 시기를 10월 말로 앞당겼다. 전북교육청은 개정 교육과정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고시하고, 고시 자료 보급 및 공유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군산대, 민간주도 과학문화활동참여기관 모집

4000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민간 기관·단체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 ▷민간 NGO 단체 ▷협동조합·협회·협회·사회적 기업 ▷기타 도내 소재 기관 및 단체 ▷학교법인 및 초·중·고등학교·대학 등 ▷학술단체 ▷출연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원 분야는 총 6개 분야로 ▷과학 융합콘텐츠 ▷과학 소통 ▷찾아가는 과학관 ▷탐방 ▷일상문제 해결 ▷기타(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다. 접수는 공고일로부터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학교 100개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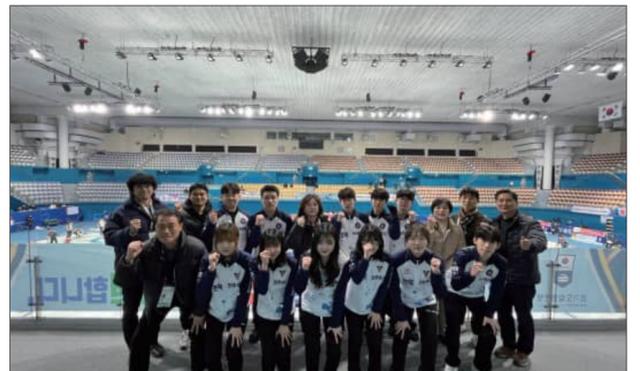
내달 5일까지 희망학교 공모

전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학교를 공모한다.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언어·문화·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등을 주제로 국내학교와 해외학교가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공동수업을 진행한다.

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 중심 국제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 유형은 △온라인 공동수업형 △대면수업·해외 현장체험학습형 △해외학교 초청수업형 △통합형 등 4가지로 학교 여건에 맞춰 선택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공동수업은 6차시 이상을 필

수로 운영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현지 학교 교육과정 참여 및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심화 프로젝트 학습으로 확장한다. 특히 시애틀·시카고·상파울루·태국 한국교육원과 연계해 강화,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교류수업 학교를 희망하는 학교

는 오는 3월 5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12일 발표한다. 선정된 학교에는 수업 운영비, 해외 현장체험학습비, 초청수업 운영비 등을 유형별로 차등 지원한다. 또 국제교류수업지원단 컨설팅, 교원 연수,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교육청>

전북현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한 천체 관측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 선수들의 훈련공간인 전북현대 클럽하우스가 '어린이 천문대'로 변신했다. 전북현대는 지난 12, 13일 모집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 40명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클럽하우스 투어와 천체 관측을 진행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 '머큐리 프로젝트'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열린다. 이날 참가자 어린이들은 평소 공개되지 않는 실내 훈련장과 피트니스실, 치료실, 식당, 미팅룸 등을 둘러보며 선수들의 노력과 일상이 담긴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진 천체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의 설명을 통해 천체에 대한 기초 개념을 쉽고 흥미롭게 익혔으며,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천체 관측 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머큐리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인 아

이들이 미지의 공간인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천문 교육 공헌 프로그램이다. 전주화정초 박진명 어린이의 보호자인 박영규님은 "우선 쉽게 접할 수 없는 클럽하우스를 둘러볼 수 있어 영광이었다. 그 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천체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 더욱 인상적이며, 무엇보다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북현대는 '머큐리 프로젝트'를 지난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전주기상지청)과 함께 4회 운영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 어린이들은 현대자동차 수소 브랜드 'H2WO' 로고가 적용된 기념 티셔츠를 착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미래 세대를 향한 지속가능한 가치와 '머큐리 프로젝트'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사진=전북현대>

경험했다. 1998년 현대자동차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신념을 바탕으로 미지의 영역이었던 수소전기차 개발에 도전하며 '머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전북현대는 이 철학을 담아 '더 나은

미래'를 '미래 세대인 아이들'로, '미지의 영역'을 '우주'로 재해석해 브랜드 CSR 프로그램 '머큐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학생 선수단,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종목 석권

전북도교육청은 19일부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천경기로 열린 컬링 종목에서 전북학생 선수단이 대거 메달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 컬링 학생 대표팀의 전력은 눈부셨다. 12세 이하부(초등부) 남녀 팀은 나란히 은메달을 목에 걸며 동반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 마지막 날 12세 이하부 여자 대표팀은 경북 대표팀을 8대 7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경기 대표팀에 10대 6으로 아쉽게 저 은메달을 획득했다. 12세 이하부 컬링 남녀 대표팀(전주스포츠클럽)은 전북교육청이 지정·운영하는 '위탁형 스포츠클럽' 소속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선진국형 클럽 시스템을 통해 기량을 닦아온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 남녀 동반 결승 진출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전북형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명했다. 한편 오는 25-2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전북 학생선수는 6개 종목에 134명이 출전한다. /장정철 기자



정읍시, 3월 27일까지

‘동학농민혁명대상’ 후보자 공모

정읍시가 평등과 자주의 숭고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온 공로자를 찾아 예우하기 위해 ‘제16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를 오는 3월 27일까지 추천받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동학농민혁명대상’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발전에 공헌했거나 그 정신을 잇기 위한 학술·연구 및 문화 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후보자 추천은 동학 관련 단체 및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유관 기관장, 학교장, 사학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는 정읍시청 동학유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이용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은 평등과 자주의 소리 높여 외쳤던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자부심이자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의 시대적 가치로 확산시키는 데 묵묵히 힘써 온 분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26일~내달 6일까지 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 모집

군산시가 콘텐츠 산업 창업 활성화 및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군산콘텐츠팩토리 신규 입주기업 2개사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창업가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모집 분야는 캐릭터,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콘텐츠 관련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이다.

군산콘텐츠팩토리는 지역 콘텐츠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창업보육(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전용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회의실·편집실 등 공유공간과 콘텐츠 제작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초기 운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입주 시기는 각각 4월 1일과 6월 1일이며, 최초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입주 가능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산시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입주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군산콘텐츠팩토리 3층 운영지원실로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orca88@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1억 5천만 원 투입해 과수 병해충 예방 총력

익산시가 방제약제 지원과 농가 교육을 추진해 과수 병해충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과수의 생육 시기에 맞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와 돌발해충 방제약제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7일에 지역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과수화상병 방제약제와 돌발해충 방제약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에 앞서 시는 지난 3일 과수화상병에 대한 선제 대응과 지역 실정에 맞는 약제 선정을 위해 방제약제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과수에 발생해 줄기와 잎, 과실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법정 전염병이다. 발생 시 과원을 폐원해야 할 만큼 피해가 커 농가에 치명적이다.

돌발해충은 그을음병을 유발하거나 산란으로 1년생 가지를 고사시키는 피해를 준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충기(5월 말)와 성충기(10월)에 맞춘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 재개장

자연 친화적 자유놀이 체험교육 공간...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

익산시가 지난해 개장 두 달 만에 1만 명이 찾으며 큰 관심을 받은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을 재개장한다.

익산시는 겨울철 시설 정비와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지난해 10월 개장 후 큰 관심을 받으며 두 달 만에 이용객이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북 지역 유아숲체험원의 연간 평균 이용객인 약 4천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도심 속 산림 교육·체험 명소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총 1만 951㎡ 규모로 조성된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은 언덕과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됐으며, 자유놀이 공간과 체험교육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울퉁불퉁한 숲길과 나무 사이를 따라 다양한 놀이시설을 배치해 아이들이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정서와 신체 발달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놀이 공간에는 탐험놀이대와 네트놀이대 등이 마련돼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트놀이대 등이 마련돼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탐험놀이대는 33m 규모의 놀이시설로 숲을 탐험하듯 외나무다리와 그물망을 지나 미끄럼틀로 내려오는 구조다.

체험교육 공간은 무지개 네트와 밧줄놀이 등 숲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상 5m 높이에 설치된 무지개 네트는 6개의 공간이 네트로 이어진 구조로, 아이들이 나무 사이를 누비며 모험하듯 활동할 수 있다.

체험교육 공간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 단체뿐만 아니라 유아 동반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구

분해 운영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단체 예약 중심으로 운영되며, 평일 오후 3~5시와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는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3월 31일 이후 익산시 누리집 내 산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이 유아의 자연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족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개그맨 박명수, 군산 ‘배달의 명수’ 얼굴로

브랜드명·이름 시너지 기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 출신 개그맨 박명수와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홍보모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명수의 높은 대중 인지도와 친근하면서도 독보적인 캐릭터가 ‘배달의 명수’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번 모델 계약을 진행했다.

특히 ‘배달의 명수’라는 브랜드명과 박명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며,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명수는 오랜 방송 활동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지도를 구축해왔으며, 특유의 솔직하고 유쾌한 화법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해 광고, 디지털 콘텐츠, SNS 캠페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배달의 명수 관계자는 “박명수는 이름만으로도 화제성과 신뢰감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번 홍보모델 위촉을 통해 배달의 명수의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한 공공 배달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공유키보드 관리지원사업 본격 추진

새만금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는 24일 새만금시니어클럽(관장 박진영)과 함께 ‘공유키보드 관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차와 보행 안전 문제를 개선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무단 방치된 공유키보드의 안전 구역 재배치 △주정차 위반 공유키보드 신고 및 안전제도 활동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군산시는 민원 다발 지역과 관리 필요 구역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새만금시니어클럽은 참여 어르신 선발과 교육, 현장 운영을 맡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무단방치된 공유키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차 위반 공유키보드 신고 및 안전제도 활동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문병은 교통행정과장은 “공유키보드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즉각적인 행정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니어 일자리와 연계한 관리지원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활성화 나서

한국관광공사와 체험형 여행상품 개발 등 추진

익산시가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왕궁보석테마관광지(다노키즈월드)를 체류형 가족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익산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과 ‘2026 강소형 잠재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왕궁보석테마관광지(다노키즈월드)가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는 익스트림 슬라이드타워, 롤글라이더, 다노키즈월드 등을 갖춘 복합 관광지다. 다양한 실내·외 체험시설을 기반으로 최근 가족 단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관광 활성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은다. 관광 현황 분석과 개선 전략 수립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관광지 주요 콘텐츠를 통합한 ‘왕궁 다노 패스권’ 운영 △왕궁리 유적·미륵사지 등 익산 특화 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여행상품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익산시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다노키즈월드)의 관광상품을 고도화하고 방문객 편의를 높여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체험·체류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왕궁보석테마관광지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갖춘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대표적인 가족 체험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행정 혁신 통했다!”

2025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개 평가군(광역·시·군·구)으로 구분해 혁신 역량, 혁신 성과, 국민 체감도 등 10개 지표를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행정 평가 중 하나다.

이번 평가에서 정읍시는 종합등급 ‘우수’를 획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팔

목할 만한 성장세다. 2024년 ‘보통’ 등급에 머물렀던 정읍시는 불과 1년 만에 ‘우수’등급으로 최상위권에 안착하며 혁신 행정의 저력을 과시했다.

정읍시는 총 10개 평가 지표 중 8주 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조직 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대표 혁신과제 등 5개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 중심의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한편, 경직된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개선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해왔다.

특히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협력 모델과 주민이

직접 제갈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과제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 평가단은 “정읍시가 대부분의 지표에서 보통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기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성과를 입증했다”고 평가 의견을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맞물려 만들어진 값진 결과”라며 “정읍시는 순위 상승에 안주하지 않고 AI 대전환(AI)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혁신 도시 정읍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 기업 두바이 수출 교두보 마련

‘GITEX Global’ 공동관 운영 성과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및 증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며 글로벌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24일 홀로그램 기업 ‘썬더아이에이피(대표 유재민)’와 ‘썬더가람(대표 박미진)’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기업 ‘SNOWCUB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적 ICT 전시회 ‘지텍스 글로벌(GITEX Global)’에서 홀로그램기업 공동관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지역 홀로그램 기업들의 경쟁력을 알리고, 현지 판로 개척과 수출 상담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썬더아이에이피는 1

억 원 상당의 홀로프로토박스 1대를 납품하기로 했으며, ‘썬더가람은 이동형 가상현실(VR)버스 6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썬더아이에이피는 2020년 11월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홀로그램 키트 제작, 투명 디스플레이 기반 제품, 콘텐츠 제작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썬더가람은 지난해 3월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매쉬스크린 기반 홀로그램 하드웨어와 콘텐츠 제작, 이동형 가상현실(VR)버스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홀로그램 지원 사업과 해외 전시 공동관 운영, 사후 바이어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 홀로그램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 박차

정읍시가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호우와 상습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올해 총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저수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용수 확보를 위한 용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수지 안전관리 및 시설 정비에 23억원을 투입해 칠보면 와우제를 포함한 노후 저수지 7개소의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단순한 시설 개보수를 넘어 △저수지 예방 활동 △제조 작업 등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병행해 시설물 노후에 따른 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수리시설 정비를 통해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신속한 사업 집행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축제콘텐츠대상 수상

군산시간여행축제가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문화·예술부문 대상 수상하며 축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상으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축제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축제 콘텐츠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군산시간여행축제는 2025년 ‘군산의 진짜 시간여행’을 주제로 과거와 근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군산

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시간’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차별화된 콘텐츠와 참신한 기획으로 풀어나 관람객들에게 군산만의 특별한 축제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2025 피나클 어워드 금상에 이어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수상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공감과 화합의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마실축제, 축제콘텐츠 대상

축제관광 부문서 수상 참신·다양한 프로그램 슬로건에 부합 '호평'

부안군은 24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12회 부안마실축제는 해뜰마루 지방정원에서 열린 두번째 축제 로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호평을 받은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부안의 13개 읍면의 특색을 살려 마실의 정체성을 보여준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엄마·아빠들의 경연대회인 '마마스 앤 파파스 뮤지컬페스티벌', 부안의 특산물을 직접 구입해 조리해 먹는 '로컬푸드 팝파티', 어린이날을 맞아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 '해뜰마루 마실 퍼레이드', 축제 기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부안군 축제 캐릭터 '부안몬 프렌즈'가 각인된 순금 골드바를 증정한 '황금몬

을 선물합니다' 등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물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으로 부안마실축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올해 열리는 제13회 부안마실축제도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부안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열리는 제13회 부안마실축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해뜰마루 지방정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개최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지방정부 혁신평가 '우수'

2년 연속 모범 평가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혁신 지방정부의 위상을 공공히 했다.

전국 지방정부의 혁신 역량과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행정 전 영역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혁신 행정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및 AI 전환(AX) 기반 마

련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 전 영역에서의 균형 있는 성과도 돋보였다.

△혁신 활동 참여 및 성과 확산을 위해 타 지자체에 고품화 농촌 지역의 인력대응 모델을 제시하는 멘토링 활동에 앞장섰다.

또 △민·관 협력 및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우리동네 복지보안관 활동을 통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민의 차별화된 혁신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스마트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신흥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김제시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신흥지구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신흥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설명하고, 주민·전문가 등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신흥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신흥동 457번지 일원 약 11만 8000㎡를 대상으로 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공급, 편의시설 조성, 생활안전시설 조성 등을 목표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공동체 회복까지 도모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세부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모정 신축 및 개보수사업 시행

김제시는 마을 공동체의 휴식공간이자 주민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모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 활용을 위해 2026년 모정 신축 및 개보수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모정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2026년부터 모정 신축 지원 금액을 기존 2,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상향해 보다 안정적인 시설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모정이 단순 휴게시설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생활 인프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보수 시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재와 구조 적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모정은 마을 주민의 쉼터이자 소통 공간으로, 장기적인 관리와 활용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축 지원금 증액과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통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관리가 쉬운 모정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전북 고창군이 청·중장년 취업 기회제공과 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훈련기관'으로 고창성모간호학원(유)고창드론항공교육원을 선정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총사업비 1억1600만원)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청·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관내 교육생과 훈련기관에 취업 연계를 위한 지원을 한다.

선정된 교육생들에게는 훈련비가 전

액 무료이며, 매월 출석률이 80%이상인 훈련생들에게는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2개 기관은 간호조무사와 드론국가자격증의 과정을 운영한다. 각각 약 20명의 훈련생을 모집해 3월부터 4-6개월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관련 직종에 취업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훈련기관과 교육생들이 모두 만족하고 적극적인 취업 연계로 취업 후에도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묘 2만주 공급

고창군이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위해 국내육성품종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농가로, 오는 3월까지 약 2만주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소담미(꽃고구마), 호풍미(호박고구마) 등 국내육성 3개 품종이다. 대상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고수면) 내 조직배양실을 직접 방문해 분양 대금을 납부한 후 묘를 수령하면 된다.

배양해 바이러스를 제거한 모종으로 일반 종순에 비해 생육이 균일하고 병해 발생이 적어 수량성과 상품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년 2만주 이상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조직배양묘 공급은 고구마 품질 향상과 생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품종 보급과 현장 기술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구마 조직배양묘는 무균상태에서

고창군 '유용미생물 바로배송' 운영 재개

14개 읍면 주 5회 배송 수확량 ↑·연작장애 완화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겨울철 잠시 중단됐던 '유용미생물 바로배송 서비스'를 본격 재개 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바로배송 서비스를 시행해 농·축업인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절기 일시 중단됐던 배송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재개되며, 현장 중심의 영농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바로배송 서비스는 관내 14개 읍·면 농·축업인들을 대상으로 주 5일(월~금) 운영된다.

농가는 군주별 최대100L~200L까지 공급받으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다.

공급되는 주요 미생물은 혼합균, 광합성균, 고초균, 고온성미생물 등으로 농업뿐 아니라 축산, 수산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유용미생물 토양 유기물 분해 촉진, 병해충 억제, 항생물질 생성 수확량증대 등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며 화학비료 사용 절감과 연작장애 완화, 토양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 자원이다.

현재 매년 약 3000여 농·축·어가가 유용미생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진=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고품질 유용미생물 생산과 맞춤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용미생물 공급과 함께 농가들 직접 찾아가는 상담과 현장 지도에도 성실히 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노후차 감축 '가속'

18억 원 투입...대기질 개선 사업 총력

김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관내에 등록돼 있고, 소

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및 건설기계다.

지원 항목은 △조기폐차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등이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삭기·로더·롤러이며, 총 400여대를 지원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과 건설기계 엔진교

체 지원사업은 2026년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신청은 25일부터 김제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빠른 신청을 당부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대기질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동진면 문포어촌계 회관 준공

어업인 생활공간 마련 어촌계원 불편 해소

부안군은 최근 동진면 문포어촌계 회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21일 준공식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박병래 군의회 의장과 김원진 군의원, 김정기 도의원, 송광복 부안수협장, 강경근 부안군어촌계협의회장, 지역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어촌계회관 준공 및 개소를 축하했다.

문포어촌계는 그동안 어촌계 회관이 없어 100여명에 달하는 계원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와 오래전부터 문포어촌계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손꼽혀 오던 중 지난 2025년도 서해 EI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사업에 반영돼 본격 추진됐



으며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부지 597㎡에 연면적 67㎡ 규모로 시설했으며 사무실과 회의실, 어업인 휴게공간과 각종 문화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 등으로 이루어졌다.

권익현 군수는 "많은 어려움에도 어촌계와 행정이 협력해 지역 어업인들

의 편만한 쉼터이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됐다"며 "어업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맞춤형 생활공간으로 거듭나 어촌마을 발전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부안군>

의 편만한 쉼터이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됐다"며 "어업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맞춤형 생활공간으로 거듭나 어촌마을 발전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 로젠 초대형 물류터미널 '본궤도'

테크노밸리2산단 건축허가 접수 1,083억 투자·932명 고용 효과 물류거점 부상 기업 집결 가시화

로젠(주)이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에서 초대형 물류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접수하면서, 완주군이 전북권 물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로젠(주)은 지난 23일 봉동읍 제내리 일원에 연면적 16만 1,297㎡ 규모의 물류터미널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로젠 물류터미널은 14만 5,81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첨단 시설로 지어진다. 전체 시설 면적은 축구장 22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초대형 규모를 자랑하며, 익산나들목(IC)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사통팔달의 물류망을 구축한다.

또한 법정 기준보다 2배 이상 넉넉한 704대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대형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한다.

이번 접수는 지난 1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2월 초 소망 성능 우수 심의를 조건부 의결로 통과하는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 결과다.



로젠 물류터미널 조감도 <사진=완주군>

군은 기업의 투자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가동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 왔다.

로젠(주)은 전국적으로 6개의 메인 터미널, 1개의 서브터미널을 비롯해 지점 348개, 영업소 9,415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물류회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23년, 완주군과 총 1,083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건축허가 신청은 해당 협약의 본격적인 이행으로 향후 2028년까지 32명의 직접 고용과 900명의 간접 고용을 포함해 총 932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신속히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물류터미널 건립은 대규모 고용 창출은 물론, 향후 시설 완공에 따른 분사 이전과도 연계돼 테크노밸리 제2산단의 기업 유치 활성화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세방, BYC, 진로지스틱, 동원로엑스 등 총 1,478억 원(4개사) 규모의 주요 물류 기업들의 집결이 가시화되면서 단지 내 물류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회, 삼봉지구 민원 해결 '가시적 성과'

주민 간담회서 6건 민원 접수 1년만 단계별 완료·추진 성과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삼봉지구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6건의 민원 사항이 1년여 만에 완료·추진·검토 단계로 구체화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삼례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문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 △후문 도로차선 개선 및 어린이 승강장 설치 △삼봉지구 놀이터 시설 개선 △편백숲 조경 개선 △삼봉지구 파출소 신설 △자전거도로 개선 및 만경강 자전거도로 삼봉지구 연장 등 총 6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6일 완주군 관계 부서 및 경찰 관계자들과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정문 신호체계는 일정 신호주기 방식으로 조정, 후문 차선 개선과 승강장 설치도 완료됐다. 놀이터 정비는 예산을 반영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자전거도로 개선과 연장 사업은 관련 협의와 설계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 파출소 신설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이로써 접수된 6건의 민원 가운데 △2건 완료 △1건 2월 말 완공 예정 △2건 추진 중 △1건 장기 검토 단계로, 1년여 만에 대부분의 사항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순덕 위원장은 "학생 안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안이었다 만큼 현장을 중심으로 해결에 집중해왔다"며 "남은 과제 또한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120만원봉사대' 가동 찾아가는 미용서비스 신규 도입

남원시가 시민의 생활 불편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120만원봉사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는 24일 이백면 폐문·효촌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150회에 걸쳐 300개 마을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현장 민원 처리와 이동 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해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초고령화 사회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찾아가는 행복 미용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남원시지부와 함께 추진하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가정을 전문 미용사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이다.

기존의 120만원봉사대 활동 역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된다. 봉사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농기계 등 생활 밀착형 점검 및 수리를 지원한다. 이동 빨래방을 운영하고 청소를 돕는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상 속 고통을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120만원봉사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세대는 남원시 대표번호(120)로 연락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농어촌 보육 특례 확대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 인정 삼봉지구 인가 예외 허용

완주군이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장기 보육계획과 연차별 보육계획 등 주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완주군 중장기 및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2026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 지역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 인정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체험은 방문 2일 전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여행사 관계자, 행·재정 지원을 받는 행사 참가자, 정치·종교 행사 목적 방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또한 저출산에 대응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와 정원 증원 변경 인가를 제한하되, 원아 수요가 급증하는 삼례 삼봉지구 권역에 한해 소재지 변경 인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심의를 앞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새롭게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은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2026년도 보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육 정책의 내실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아침 돌봄 수당,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외국인 보육료 지원과 군 자체 사업인 부모부담 필요경비(1~2세) 지원 사업에도 외국인 자녀를 포함해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유희태 군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 등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어촌 특례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농업·농촌 치유체험관광 참가보상비 지원

체험비 최대 4만 5천원 지원 지역 14개 농가 프로그램 참여

순창군이 농업·농촌 자원과 치유 서비스를 연계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업·농촌 치유체험관광 참가보상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 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개별 여행객은 물론 여행사, 학교, 코레일 여행센터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은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참가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인 이상 100인 이하 단체를 대상으로 1일 체험의 경우 체험비의 50% 범위 내에서 1인 최대 1만 5천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1일 최대 2개소 체험이 가능해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박 2일 체험의 경우에는 참가비의 30%

범위 내에서 1인 최대 4만 5천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농가는 관내 14개소로, 치유텃밭 체험, 전통주 빚기, 원예·푸드테라피, 허브족욕, 떡 만들기, 커피 로스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체험은 방문 2일 전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여행사 관계자, 행·재정 지원을 받는 행사 참가자, 정치·종교 행사 목적 방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취업연계형 기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신규 고용 창출 연계 추진 40개 기업 내의 시제품·판촉 지원

남원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 취업연계형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 내 소규모 기업 가운데 신규 고용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선발해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상품 판촉·프로모션 △전문가 자문 등을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고용 계획이 없는 기업도 상품 판촉·프로모션 분야에는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규모는 40개 내외이다. 신청은 전자우편(garam5217@naver.

com) 또는 남원시 기업정책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설명회는 3월 20일 오후 2시 남원바이오산업연구원서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063-290-18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제납차량 합동단속·3천만원 징수 목표

2회·30만원 이상 체납 대상

순창군은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이달 말부터 3월 초까지 부서 간 합동으로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와 아파트 단지,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차량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납부 기한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변호판 영치 10대 이상 △현장 징수 및 자진납부 유도 3천만원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와 변호판 영치 등 강제집행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체납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현장 중심의 단속을 통해 체납을 근절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문화재단, '꿈의 무용단·극단 완주' 단원 선발

초등 1~6학년 각 30명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완주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꿈의 무용단 in 완주'와 '꿈의 극단 in 완주'의 2026 단원을 모집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완주군 및 인근 거주 초등 1~6학년 아동(완주군 거주 우선)을 대상으로 하며, 각 30명(사회적 배려계층 40% 우대)을 선발한다.

'꿈의 무용단 in 완주'는 현대무용을 바탕으로 몸의 감각을 깨우고, 나만의 움직임을 찾아 친구들과 연결해 표현하는 무용 기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꿈의 극단 완주'는 2026년 '너, 그리고 관계'를 주제로 사람 뿐 아니라 자연·반려동물·물건·취향 등 '나와 연결된 존재'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과 변화를 대본, 장면, 움직임으로 풀어내는 연극 기반 예술교육을 진행한다.

모집은 오는 3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2차 인터뷰(대면 또는 인터뷰 영상 제출)를 통해 참여 동기와 의지를 확인한다. 인터뷰에는 보호자 동반 참석이 필요하다.

교육은 완주가족문화교육원 1층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지역 전통 이을 명인·명장 찾는다

문화예술·공예 2개 부문 20년 종사·군 10년 거주 요건

순창군이 지역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문화적 자산을 알리기 위해 '2026년 순창군 명인·명장'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은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과 공적을 쌓은 인물을 발굴·지정해 자금 지원을 높이고, 순창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2개 부문으로, △명인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공헌을 인정받은 자 △명장은 공예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지역 문화 계승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진=순창군>

신청 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주민 30명 이상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순창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전통 기법과 기술을 보존·계승해 온 인물로, 상급 기관에서 동일·유사 분야로 이미 지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명인·명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되며, 결과는 4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자는 오는 4월 17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인증패를 수여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3-650-162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특히 다양한 사회보장 사업들이 시민 체감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 기반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 확산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의견을 도출했다.

아동·노인·장애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 및 안전망 강화 사업, 읍면동 중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주요 세부사업의 추진 성과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검토했다.

위원들은 민관 협력 체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기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일부 사업의 성과 지표 현실성 보완과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는 논의된 의견을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군 '마을만들기' 2026년 대장정 돌입

진안군이 2026년도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에 나섰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3년 시작돼 2010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화된 '진안형 모델'로 자리 잡았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어지는 승급형 지원체계는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관내 319개 마을 가운데 241개 마을(76.9%)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 정책으로 안착했다.

올해는 총 24개 마을이 단계별 사업에 참여한다. 1단계 '그린빌리지' 12개소를 비롯해 2단계 '잠살기좋은마을가꾸기' 6개소, 3단계 '옴마을가꾸기' 3개소 등이 포함됐다.

특히 1단계 그린빌리지에는 △진안읍(외기·암곡·개실) △상전면(회사·금당) △백운면(동산) △마령면(장재·널티) △부귀면(석정·하수항·가정·신덕) 등 12개 마을이 참여해 주민 주도의 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한다.군은 기초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 마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행정 능력 인정 받았다!

행안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 2위 선정 지난해 대비 35계단 상승

무주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중 2위(우수기관)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지난해(37위) 대비 35계단 큰 폭 상승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무주군은 앞으로 혁신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무주군은 △혁신 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국민 체감도 평가 등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주민 소통·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무주군청 누리집 '찾아가는 지방규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군 무주읍 선정 주민 축하 한마당 <사진=무주군>

제 신고센터 게시판, '청년 자유게시판' 신설 등 소통 채널을 다양화했으며 '주민아이디어 공모',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운영',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개선 효과를 이끌었다.

또한 의료·복지·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서비스를 현장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확대하는 등 주민 요구와 변화에 초점

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 호평을 얻었다. 무주군은 인공신장실을 갖춘 전북 동부권 유일의 '무주군립요양병원'을 개원해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진료 등 통합 요양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 조직 내에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기본소득 지급 등 시범사업의 기틀을 다

졌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추진

임실군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물품은 성인용 기저귀 1종으로, 연 2회(상·하반기) 택배로 배송되며 반기당 8팩, 1인당 연간 총 16팩을 지급한다. 다만,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해당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보건의료원에서 대상자 요건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결정·통보하고 조호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건강수준 높인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24일 무주군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주군가족센터 소교육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가족지원사업의 공동 기획·운영,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운동·영양·만성질환 예방·정신건강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 중심의 보건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부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홍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캠페인 운영과 관련 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역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은 "2025년 말 기준 무주군의 다문화가족은 본인·배우자·자녀 포함 242가구, 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실상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건강정보 접근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 체결은 다문화가족 등 건강 취약계층 돌봄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만큼 가족센터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무주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농업 미생물 시대' 활짝

농가맞춤형 5종 미생물 보급 "생산성·경제성 다 잡는다"

임실군이 고품질 농업미생물의 본격적인 생산과 공급에 돌입하며 지역 농업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 실현과 농업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농업미생물 공급 사업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이 역점으로 추진해 온 핵심 농정 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과 농가 소득 증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사업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농업미생물의 활용 방법과 기대 효과를 집중 홍보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농가의 이해도를 높인 만큼, 2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인 미생물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미생물은 농가 수요에 맞춰 5종으로, 2L당 500원(1L당 250원)이며, 농가가 용기를 지참하는 분주 방식의 경우 1L당 200원으로 더욱 저렴하게 제공된다.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할 생산기반



조형 보급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생물 공급 가격을 실제 생산비의 20% 수준으로 책정했다.

포장재를 포함한 가격은 2L당 500원(1L당 250원)이며, 농가가 용기를 지참하는 분주 방식의 경우 1L당 200원으로 더욱 저렴하게 제공된다.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할 생산기반

도 탄탄히 구축했다.

지난해 12월, 임실군 신평면 일원에 총사업비 31억 5,300만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495㎡ 규모의 농업미생물배양센터를 조성했으며, 최신 배양 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체계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농업미생물배양센터는 최신 배양 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고품질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가격 경쟁력과 품질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2026년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소통·공유 공동체 활성화

장수군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6년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아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을 대상으

로 한다. 귀농귀촌인은 전입 5년 이내(2021년 2월 24일 이후 전입자)인 자로, 동아리 회원 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전체 회원 중 귀농귀촌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동아리는 마을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모임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강사비, 교육재료비, 문

화활동비, 식비 등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2026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추진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진안군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지난 23일부터 본격 추진했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안군과 NH농협은행, 전북은행의 출연금을 제

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해 관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 제도이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함께 총 4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대출 기간 5년 동안 연 3%(도 1%, 군 2%)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은 전복자치도 내 군 단위 최초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며 도내 타 시군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진안군에 소재하고 업력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063-430-8403~5)으로 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개강

무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문화예술 인재 양성 동력으로

무주청소년수련관이 '2026년 자립거점기관'으로서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자립거점기관은 사회적 배려 대상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예비 거점기관으로부터 경제적·운영적 자립을 달성한 기관으로,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개선 효과를 이끌었다.

또한 의료·복지·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서비스를 현장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확대하는 등 주민 요구와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 호평을 얻었다.

무주군은 인공신장실을 갖춘 전북 동부권 유일의 '무주군립요양병원'을 개원해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진료 등 통합 요양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 조직 내에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기본소득 지급 등 시범사업의 기틀을 다졌다.

점 운영 체제로 전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지역 내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참여 기회와 인원이 대폭 늘었다. 기존 초·중학생(초4~중1)으로 제한되던 단원 자격은 초·중·고등학교생(초3~고2)으로 확대됐으며, 바 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타악기 분야의 새로운 단원도 영입해 총 60명이 함께 연주할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도 풍성해졌다. 매주 진행되는 '정기 교육'은 물론, '향상 음악회'와 '정기연주회' 등이 개최되며, 올해부터는 다른 지역 단원들과의 음악적으로 교류를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광주 펫&캐츠쇼 참가... 임실N펫스타 홍보

임실군이 전라도권 최대 규모 반려동물 박람회인 제19회 광주 펫&캐츠쇼에 참가해, 반려동물 관련 주요시설과 축제 및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며 관람객과 직접 소통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임실군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임실군의 반려관광 매력을 알렸다.

현장에서는 임실엔TV 유튜브 구독과 관련 시설 인스타그램 팔로워 참여

자를 대상으로 롤케이크 이벤트를 진행해 임실치즈, 반려동물 발생정책, 배변봉투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 부스를 방문한 한 참가자는 "임실군에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와 시설이 이렇게 다양하지 몰랐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에 잘 갖춰진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꼭 방문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장수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사진)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 과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위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사

전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여 신심성·도인기품 출장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한 징벌 및 감시 체계가 포함됐다. 징계나 경미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감사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항도 눈에 띈다. 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직원이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다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앓서포터즈' 운영... 지역 홍보 활성화

진안군이 전북권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홍보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24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광·축제 홍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경영 진안부군수와 손경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진안군 대표 축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청소년·학부모·교육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전북권 학원 및 교육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안앓 서포터즈'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안앓 서포터즈'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주요 축제 및 관광지 홍보, 지역 소식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외부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군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식과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군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들에 책가방 선물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KB국민카드와 아름다운동행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책가방 보내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비 초등학생들의 힘찬 첫걸음을 응원했다.

군은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340만 원 상당의 예산으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17명에게 책가방 세트와 학용품을 전달하며 취약계층 가정의 입학 준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지원 대상 아동들에게는 책가방과 보조가방을 비롯해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노트, 필기구 등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알찬 학용품 꾸러미를 제공했다.

선물을 전달받은 한 보호자는 "입학 시즌을 앞두고 만만치 않은 가방 가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아이가 겨울 앞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제13기 찾아가는 진안 성수면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는 24일 성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3기 찾아가는 성수면 노인대학 입학식(학장 전현준)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노인대학생 40명을 비롯해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전현준 대학장, 이세민 성수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 선서, 노인대학장의 입학식사,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구동수 노인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찾아가는 성수면 노인대학 입학식을 축하하며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격려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노인대학은 단순한 교육의 장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행복한 사랑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과 교육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김동영 소방사 전북도 구급개인술기 "1위"

전문 현장 구급기술 입증 '119리본 구급대원' 선정

전주덕진소방서 김동영 소방사가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선수 선별경연대회 예선 구급 분야에 참가하며 개인술기 1위를 차지했다.

경연대회는 구급현장의 핵심 술기 수행 능력 종합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평가로는 △기분소생술 △정맥로 확보 △호흡을 청취 △기관 내 삽관 △심전도 판독 등 총 5개 종목 등이다.

대회에 참가한 출전 선수들은 각 술기를 연속적으로 제한 시간 내 정확하게 수행하며 엄격한 술기 누락 기준 아래 경연이 진행됐다.

김 소방사는 실제 출동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경연 방식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 구급기술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아울러 모든 종목에서 정확성과 숙련도를 고르게 발휘하며 안정적인 술기 수행을 선보였으며 가장 빠른 합산 기록을 달성하며 우수성적으로 1위에 올랐다.

대회 최종 순위는 5개 종목 수행 시간을 합산해 가장 짧은 기록을 달성한 선수 순으로 결정됐다.

김동영 소방사의 예선 1위 성과에 따라 오는 5월 11일 광주중앙대회에 참가한다.

김 소방사는 대회 준비를 위해 24시간 교대근무 퇴근 후 전주덕진소방서 본서에 남아 오전 오후 내내 훈련을 다해 연습에 임했다.



김동영 소방사는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2024.07월 소방공무원에 임용됐다.

그는 현재 전주덕진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현장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우수한 구급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119리본(Reborn) 구급대원'에 선정된 인물이다.

전주덕진소방서는 훈련에 관한 한 모든 물품 및 장소 장비·구급소모품 등을 제공하며 소방사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정읍딸기연구회, 딸기 100상자 장학금 200만원 기탁

정읍딸기연구회는 지난 23일 회원들이 각자의 농장에서 정성껏 수확한 딸기 100상자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딸기 수확 시즌이 마무리되기 전, "직접 키운 딸기를 이웃들과 꼭 나누고 싶다"는 회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성사됐다. 회원들은 심심일만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당일 수확한 신선한 딸기를 포장해 현물 기탁까지 진행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 태극태권도, 아이들이 전한 사랑의 라면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라면 2,100봉지 기탁

익산시는 24일 '태극태권도(총관장 강용)'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2,100봉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라면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지역 저소득 가정과 위기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태극태권도는 부송태권도(지도관장 윤승호), 어양동태극(지도관장 한성남), 이편한태극(지도관장 김형근) 등 4개 지점이 참여해 10년째 라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강용 관장은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도 라면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태극태권도가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롯데몰 군산점 사룟데봉사단, 드림스타트 아동에 운동화 지원

군산 드림스타트와 롯데몰 군산점 사룟데봉사단이 24일 롯데몰 군산점에서 '신학기 운동화 지원사업'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탁식은 신학기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용품·의류 준비에 부담을 겪는 드림스타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룟데봉사단은 사룟관리 대상 아동 12가정을 위해 총 96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기탁했으며,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취약계층 가정 아동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본부, 무주군에 장학금 기탁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이하 본부)가 24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5백만 원을 기탁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홍성수 본부장은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림의 보고, 무주군의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게 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와 상생할 수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산림자원 조성, 임산물 유통, 산림경영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무주군에 장학금 5백만 원을 기부한다

/무주=최의호 기자



전북대 졸업생 조재강씨, 졸업식에서 장학금 기탁

전북대학교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졸업식에서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졸업생 조재강씨는 지난 23일 졸업식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

조씨는 학업기간 동안 받은 장학금과 도움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조재강씨는 "제가 받았던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큰 용기와 책임감을 심어주었다"며, "그 마음을 다시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졸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후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키워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알림

▲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장녀 최정민 양 결혼 (신랑 박상우 장남 박형순 군)

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엘리어나호텔 2층
일자 : 2026년 3월 1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겨울철 화재예방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안전수칙

- 전기장판** ▶ 전기장판은 이불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금지
- 전기히터** ▶ 난방기구 주위에 인화물질 두지 않기
- 전기열선** ▶ 사용하지 않을때 전원코드 뽑기

〈一事一言〉



1400조 연기금 품은 전북, 금융산업 심장으로 쏠린다

김관춘
주필

1400조 규모의 연기금을 품은 땅, 전북이 대한민국 금융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세 차례 정권의 국정 공약으로 채택된 '제3금융중심지'의 꿈이 9년 여의 준비 끝에 마침내 결승선을 바라보고 있다.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가 이전한 이후 시작된 전북의 금융 생태계 구축기는 좌절과 도전의 역사, 그 자체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에 동지를 튼 것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운용 가능한 지방으로 이전되고 금융산업의 심장은 여전히 서울에 남았다. 글로벌 자산운용, 투자은행, 법률·회계·데이터 서비스 등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채, 전북은 거대 연기금의 '외딴 섬'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했다. 자산은 전북에 있었고, 산업은 서울에 있는 기형적 구조였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해법이 바로 '제3금융중심지' 구상이었다. 서울이 종합 금융의 심장이라면, 부산은 해양·파생 금융의 거점, 전북은 자산운용과 농생명, 기후·에너지 금융이라는 차별화된 축으로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기존 금융중심지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기능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국가 금융 전략의 다극화 모델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2017년 이후 세 차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지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인프라와

금융 모델의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고, 기본계획에서도 전북은 제외됐다. 정치적 약속과 정책적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전북 앞에 놓였다.

좌절 앞에서 전북이 택한 것은 '독심 행정'이었다. 성과를 기다리 기보다 조건을 만들겠다는 전략이었다. 글로벌금융관 준공, 금융빅데이터센터 구축,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개관, 금융혁신 공유오피스 조성 등 물리적 인프라가 차곡 차곡 쌓였다.

전북특별법에는 금융산업 육성 특례 조항이 반영됐고, 입지·설비·교육·교육훈련 보조금 등 총 300억 원의 인센티브 체계가 마련됐다. 전국 최초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유치, 디지털 금융의 교두보였다. 기금운용 전문 인력과 백오피스 인력 양성, 핀테크 벤처기업 육성은 생태계의 씨앗이었다.

이러한 준비는 글로벌 금융권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전북도는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직접 찾아 세계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를 설득했다. 그 결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사무소 9곳이 전북에 동지를 틀었고, BNY멜론 전주사무소 확장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국내 금융그룹들도 화답했다. KB금융그룹은 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을 조성해 자산운용·증권·AI 자산관리·보험센터를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신한금융그룹도 자본시장 핵심 거점 구축에 나섰다.

올해 1월,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

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원에 국제금융센터, 금융혁신 클러스터, 주거·지원시설을 갖춘 복합 금융도시 구상이 담겼다.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금융을 특화하고, 새만금 해상풍력·신공항·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금융수요 창출 전략도 제시됐다. 금융위원회의 제7차 기본계획 심의를 앞두고, 전북의 10년 도전은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

기실, 전북이 금융중심지를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청년과 일자리 문제다. 금융산업은 고임금·고부가가치 일자리의 핵심 산업이다. 자산운용, 데이터 분석, 리스크관리, 회계·법률 서비스, 핀테크 개발 인력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대표 직종이다. 전북에 금융산업이 뿌리내린다면 이는 인구 구조를 바꾸는 전략적 투자다.

지방소멸 논의가 추상적 담론에 그치는 사이, 전북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금융중심지는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전략이며, 대학과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결합하는 혁신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다. 농생명과 기후·에너지 금융은 전북의 산업 구조와 맞닿아 있어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지역에 청년이 돌아오지 않으면 산업도,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의 생존 전략이자 대한민국 지방 정책의 시련대다. 전북이 성공한다면, 이는 다른 지방에도 적용 가능한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이 될 것이다. 금융중심지는 건물이 아

니라 사람을 부르는 정책이며, 지방소멸을 멈추는 국가적 실험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더 이상 지방정부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응답해야 할 국가 과제다. 세 차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사안을 정부가 미루고 유보하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약속의 문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수도권 중심 금융 구조가 초래한 불균형의 비용을 직시해야 한다. 연기금이라는 세계적 자산을 지방에 두고도 금융산업 집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 자산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모순이다.

금융중심지 다극화는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분산하고,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 국가 전략이다. 정부가 전북의 도전을 외면한다면, 이는 지역 균형발전의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이제 선택은 명확하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가 이행해야 할 공약이자, 시대적 책무다.

이제 남은 것은 결단이다. 1400조 연기금의 땅이 금융산업의 심장으로서 뛰기 시작할지, 전북이 대한민국 금융 지도를 다시 그릴지, 그 답은 올해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금융 전략을 결정하는 역사적 판단이 될 것이다.

사설

K-퀀텀 시대, 전북 산업 도약의 새 축을 세우자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제1차 양자종합계획'을 통해 양자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공식 채택한 것은 시대적 선택이자 전략적 결단이다. 초고속 연산과 절대적 보안 통신, 초정밀 감지 기술을 구현하는 양자기술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다.

국방·금융·의료·에너지·첨단제조·우주항공 등 거의 모든 전략 산업과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부상한 지금, 방향 설정과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북도가 양자산업 선점을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며 환영할 만한 행보다.

정부의 양자종합계획은 연구개발 중심 정책에서 산업·시장 창출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K-퀀텀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는 기술 확보 경쟁을 넘어, 시장 선점과 전략 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화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이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이미 중장기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투자를 통해 전문 거점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속도 와 전략을 동시에 갖춘 대응이 절실하다.

전북이 원천기술 개발 경쟁에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 지역 내 제조·실증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활용해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는 접근은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이다. 전통 제조업, 에너지 인

프라, 신산업 기반을 토대로 양자기술과의 접점을 발굴하고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지역 맞춤형 양자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양자센싱을 활용한 첨단 제조 공정 혁신, 에너지 관리·안전 분야 고도화, 스마트 농업과 바이오·의료 분야 정밀 기술 적용 등은 전북의 산업 구조와 결합할 수 있는 실질적 응용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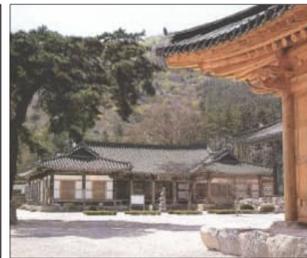
다만 양자산업은 장기전이자 총력전이다. 제도적 기반 정비, 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장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역 전략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전북은 양자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육성,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한다.

지금의 양자기술의 모든 것을 선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기다. 전북이 지역산업과 결합된 실증·응용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수도권 연구개발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국가 양자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

양자기술은 국가 미래 산업 질서를 좌우할 전략 인프라다. 전북이 국가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때, 양자산업은 전북 산업 대전환의 촉매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의 도전이 전북의 미래 산업 지형을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임을 직시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 실행을 강력히 주문한다.

문화재 열전



위봉사요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불전
- 지정일 - 1976년 4월 2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21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리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레스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유리창 / 김기림

여보
내 마음은 유리가 봐 겨울 한울처럼
이처럼 작은 한숨에도 흐려버려니.....
만지면 무쇠같이 굳은 채 하더니
하로밤 찬 서리에도 금이 갔구료

눈푸레 부는 날은 소리치고 우오
밤이 물러간 뒤면 온 뺨에 눈물이 어리오
타지 못하는 정열 바퀴들의 등대
밤마다 날아가는 별들이 부러워 쳐다보며
밝히오

여보
내 마음은 유리가 봐
달빛에도 이렇게 부서지니

시인 약력 : 1908년 함북 성진 출생. 일본 동북제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1931년 '신동아'에 '고대(苦待)', '날개만 돌치면'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일제 치하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1930년대 모더니즘 시운동의 이론가이자 모더니즘 시론을 실제 창작, 실험했다. 시집으로 장시의 '기상도'와 '태양풍속', '바

다와 나비', '새노래' 등을 간행했다. 저서로 '시론', '시의 이해', '문장론 신강' 등이 있다. 한국전쟁때 남북대 북한에서 생을 마감했다.

전북의 미래, 자연에서 시작합니다,





김제시 강한 의지와 노력 시·군간 협력의 값진 결실 이끌어

김제시가 34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하며 값진 결실을 이끌어 냈다. 시는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에 따라 축사매입과 생태복원 사업비가 당초보다 부족해지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국회단계 예산확보 청신호가 켜진 듯했으나 아쉽게도 12.3 계엄으로 인해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국비 지원 설득과 시·군 간협력을 이끌어 내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군 상생 협력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국비 확보를 위한 김제시의 노력과 전주와 완주 지방비 분담까지 이끌어낸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힘겨웠던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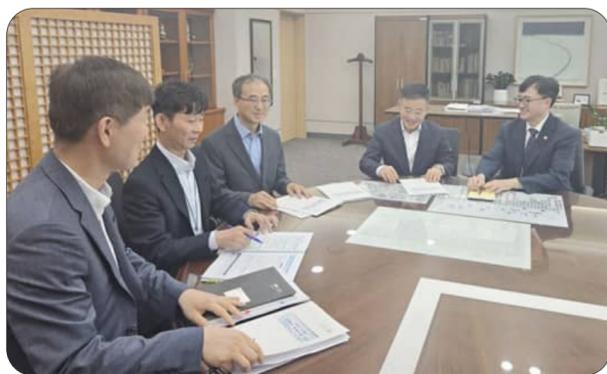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국비 238억원 추가확보 지방비는 시와군 함께 분담

○ 사업비 부족과 국비 확보 난관
시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22년부터 25년까지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국비 481억원을 들여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현업 축사 53개소를 매입·철거하고 생태복원을 위해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축사 매입과 생태복원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해지면서 축사를 26개밖에 매입하지 못했고 이후 추가 사업비 확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2024년부터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추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위해 설득에 나섰다. 특히 2024년 10월 국정감사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등 80여명이 축사매입지역에 직접 방문해 숨 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들여다보기도 했다. 이후 국회단계 예산확보 청신호가 켜진 듯했으나 아쉽게도 12.3 계엄으로 인해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기재부에서는 김제시가 최초 사업 시 국비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제시하며 이를 이유로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 김제시로서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섰고, 국비 확보를 위해 더 이상 국가직접사업을 고집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략적인 전환을 모색했다. 국고보조사업은 김제시가 사업 주체로서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국비와 지방비 7대3 비율로 340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건의하며 김제시의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또,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27개 축사 매입을 모두 완료해야 당초 목적으로 했던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인근 혁신도시 약취 해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축사 매도를 기다리는 농가의 입장 등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추가 사업은 불가피함을 기재부 설득 논리로 내세웠다. 시는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정부와 국회를 수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21년도 김제시 신암마을 전경



○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비 확보 여러 가지 상황이 김제에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김제시는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2025년 내내 기재부 설득에 나

면에서도 추가 사업은 불가피함을 기재부 설득 논리로 내세웠다. 시는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정부와 국회를 수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역 국회의원도 혼연일체로 원팀으로 움직인 끝에 결국 국가예산이 김제시의 뜻대로 정부안에 담겨 25년 12월 국회 심사에서 최종의

결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 지자체간 상생 협력으로 지방비 분담 이끌어 김제시는 국비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10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방비 재원 마련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 완주군에 손을 내밀었다. 이는 김제를 약취의 발

생지로 지목하며 벌어지는 지역간 갈등을 해당 시군이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이미 전북도와 3개 시군은 25년 5월 혁신도시 약취저감 업무협약에 따라 약취 저감을 위해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고, 비록 김제가 약취 발생 원인 지역이지만 축사 제거를 통해 약취저감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는 지역은 바로 전주와 완주이기 때문에 김제시는 두차례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환경 갈등 해소와 상생 협력 모범사례를 함께 창출하자는 제안과 설득을 지속했다. 결국, 전주시와 완주군은 김제시의 끊임없는 호소와 노력에 용지 특별관리지역 잔여축사 매입을 위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손을 맞잡았고 마침내 지난 1월 21일 도지사와 3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약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총사업비가 340억원으로(국비 238, 지방비 102) 이중 지방비는 전북도가 30%, 김제시가 50%, 전주시 10%, 완주군 10%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군 상생 협력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예산 확보 과정은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모든 현안 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김제의 밝은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